

## 3·15의거 제45주년 기념 메시지

3·15의거 마흔다섯 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5의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항쟁으로 이어져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나라를 이뤄 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돈 선거가 사라지고 공작이나 매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선거다운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설 땅을 잃고, 검찰·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정의의 3·15정신을 오늘에 구현하고 선진한국을 열어 가는 길이라고 생

각합니다.

여기에 마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이 또 한번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